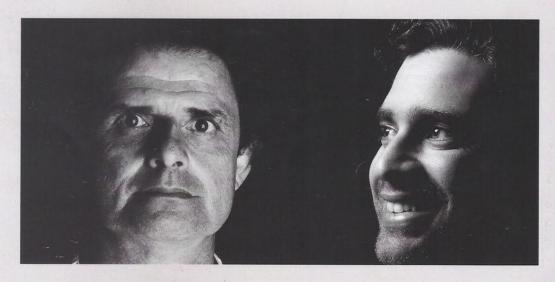


Mareines + Patalano has created a house to look like a flower, where each bedroom is a petal. Ivo Mareines and Rafael Patalano are among the most creative contemporary architects in Brazil. Partners in a studio in Rio de Janeiro, they believe that architecture is experimentation, that each project is a laboratory, a flower with petals waiting to unfurl. Andréa Magalhã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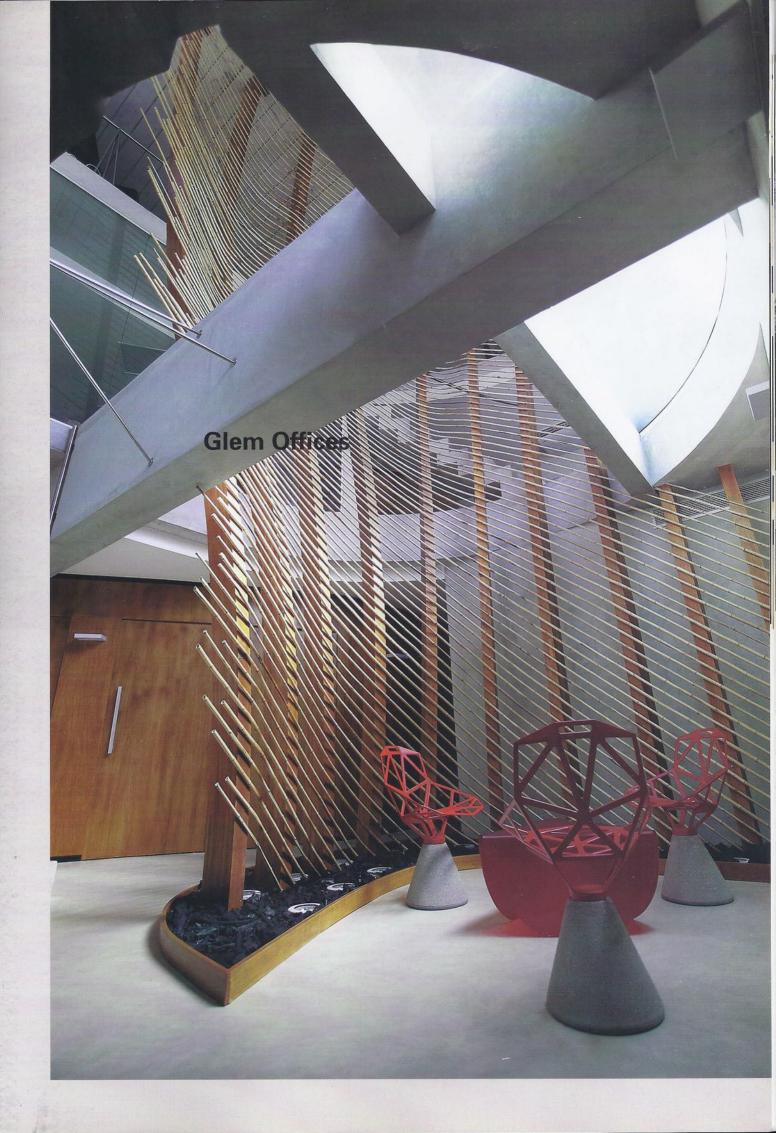
주택이 마치 한 송이 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각 침실은 꽃잎에 해당된다. 이보 마레이네스와 라파엘 파딸라노는 2001년 부터 리우데자네이루의 스튜디오에서 파트너로서 작업 중이다. "건축은 곧 실험이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건축 작업을 하는 이들은 오늘날 브라질 건축에 있어 가장 창의적인 건축가들로 손꼽힌다. 이들에게 각 프로젝트는 일종의 실험이자, 피워내야 할 각각의 꽃망울이기도 하다. 안드레아 마갈라이

GLEM Offices Leaf House MOPI Elementary School Itaipave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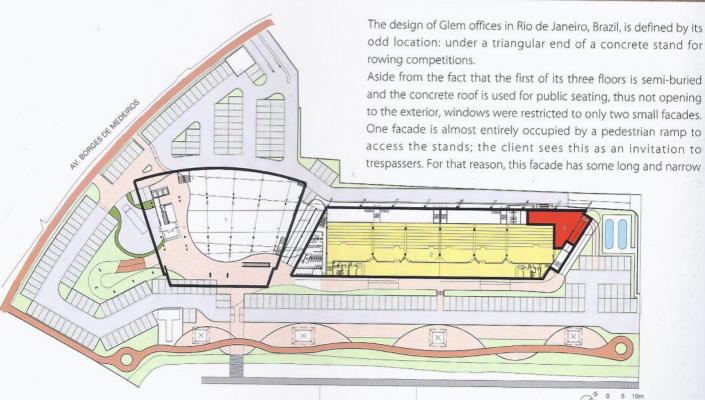


Mareines + Patalano was founded in 2001 by Ivo Mareines and Rafael Patalano. Ivo Mareines graduated in 1980 from Braz-Cubas University, São Paulo, in architecture and urbanism. Rafael Patalano graduated in architecture and urbanism from Universidade Federal de Rio de Janeiro in 1997. They have been endeavoring to experiment and realize creative sustainable architecture since 2001.

마레이네스+파딸라노는 2001년 이보 마레이네스와 라파엘 파딸라노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보 마레이네스는 상파울로의 UBC에서 건축과 도시계획을 전공하였다. 라파욜 파딸라노는 1997년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교에서 건축과 도시계획을 전공하였다. 그들은 2001년부터 창조적인 지속가능 건축을 실험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rowing stadium of Lagoa Rodrogo de Freitas 2. grandstands to Pan american competitions of 2007 3. GLEM Offices



openings closed with clear transparent glass, to invite inside only light and external views. The second facade overlooks a confusing group of buildings, a fact that led us to design a semi-circle glazing with translucent bulletproof glass.

After dealing with these limitations, architects decided to unite the separate parts of the project via a vertical circulation space defined by curved concrete stairs, eucalyptus-laminated beams and a bamboo mesh. An empty "basket" welcomes visitors and animates the office with a delicately enclosed void. On the first level, the basket-defined space offers a small waiting area for informal meetings, and distributes access to three sinuous meeting rooms, two bathrooms, a working area and a technical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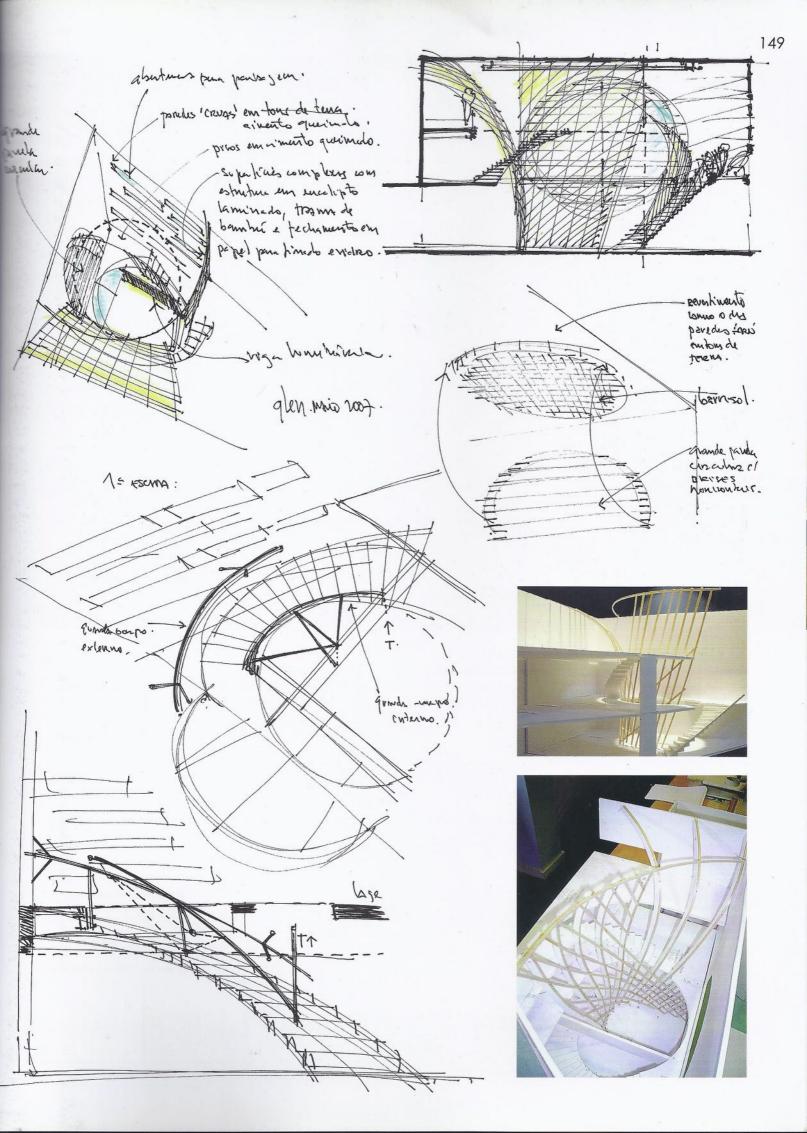
The first staircase leads to a catwalk that mirrors, in laminated translucent glass, the semi-circular geometry of one of the facade's glazing. This catwalk takes to the second floor that contains wood sliding doors that can partially connect or totally separate the directors' offices.

The second staircase leads to the informal level of the office, with a small kitchen, a table for eating and a sofa. There are also two changing rooms.

Details such as the on-site handcrafted bamboo mesh, the translucent catwalk glass, stainless steel handrails that seem to float over the stairs, and the generous light filtered mainly trough the semi-circle glazing, add lightness and grace to the design.







글램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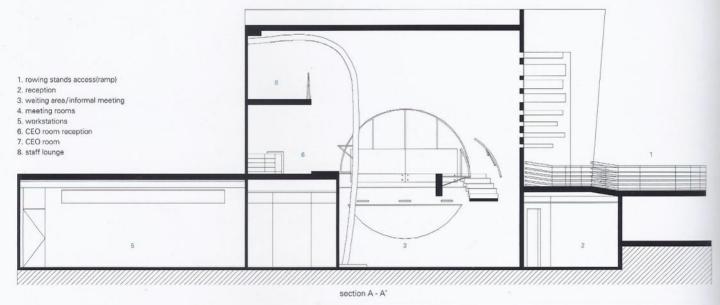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글램 사무소는 그 위치가 매우 특징적이다. 조정경기 장 안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콘크리트 관람석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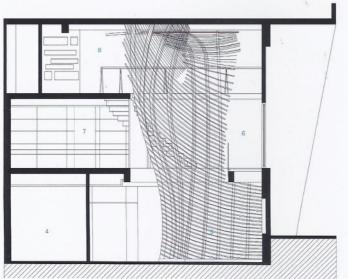
3층 규모 건물의 1층은 땅 속에 반쯤 묻혀 있으며, 콘크리트 지봉은 관람객이나 방문객과 같은 일반인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된다. 하지만 삼각형의 세 면 중 두 면만이 외부와 접해 있어 창문은 제한적으로 낼 수 밖에 없었다. 그 중 한 면은 관람석 스탠드로 출입할 수 있는 보행자 통로로 사용된다. 하지만 자칫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건축주의 우려 때문에 통로는 길고 좁게 만들고 투명한 유리로 막았다. 여러 복잡한 건물들이 내려다 보이는 다른 쪽 파사드에는 반투명한 방탄 유리로 반원형 창문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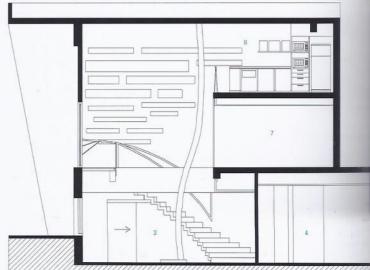
건축가는 이러한 제한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한 다음, 곡선 모양의 콘크리트 계단, 유칼립투스 합판 빔, 대나무 격자 무늬 등의 수직 동선 공간을 통해 분리된 공간들을 통합하기로 했다. 중심 공간을 감싸고 있는 텅 빈 '바구나'가 방문객들을 반기고 사무실에 생동감을 붙어 넣는다. 이 바구니 모양의 공간은 1층에서 작은 대기실이나 비공식 모임 용도로 사용된다. 이곳에서는 물결모양으로 놓인 세 개의 회의실과 두 개의 화장실 그리고 사무실, 기술실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 계단은 불투명 판유리를 통해 파사드의 유리 표면 중 하나인 반원형 형태를 비추는 좁은 통로로 이어진다. 이 통로로 연결되는 2층에는 목재 미닫이문을 두어 필요에 따라 각 사무실을 부분적으로 연결하거나 완전히 분리할 수있다. 두 번째 계단은 작은 주방, 식탁과 소파가 있는 생활 공간으로 이어진다. 수공으로 만든 대나무 격자 무늬, 반투명한 통로의 유리, 스테인리스 난간과 같은 디테일은 마치 계단 위에 떠 있는 듯하다. 또한 상당한 양의 빛이 반원 모양의 유리를 통해 유입되어 경쾌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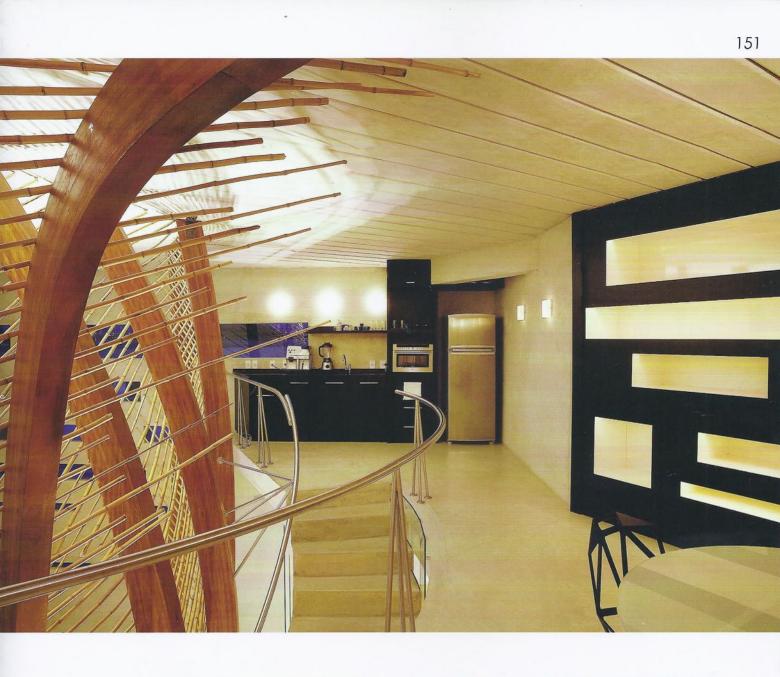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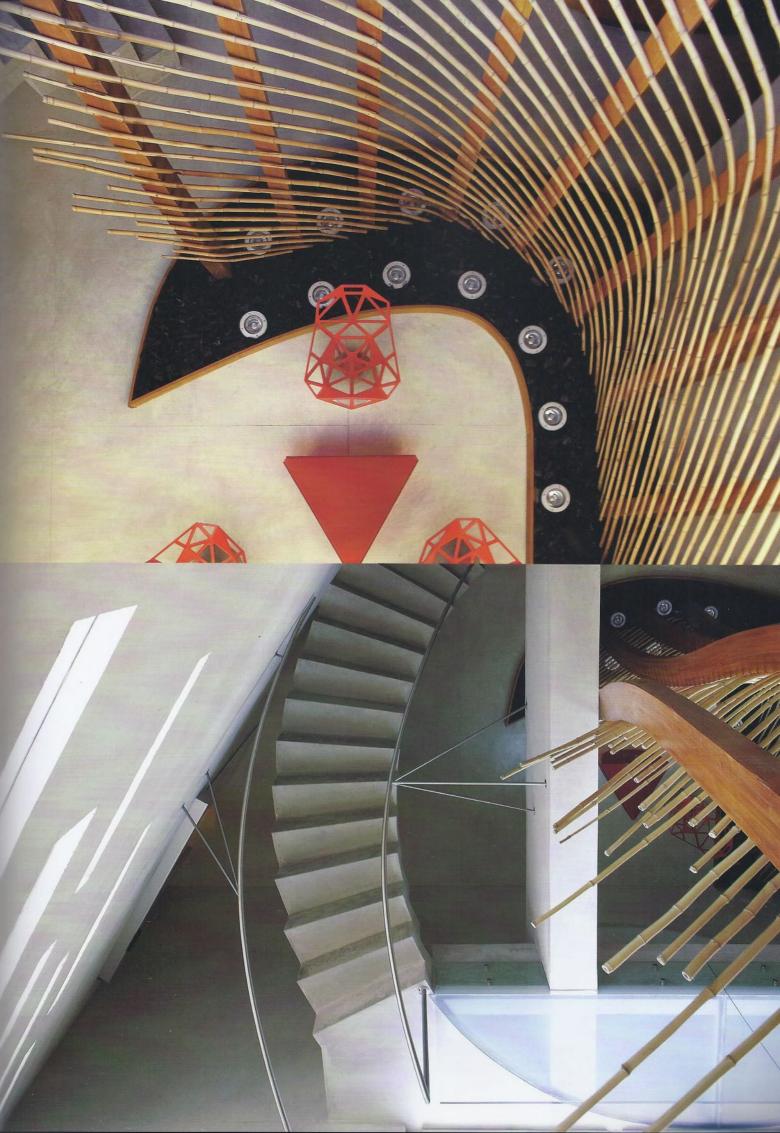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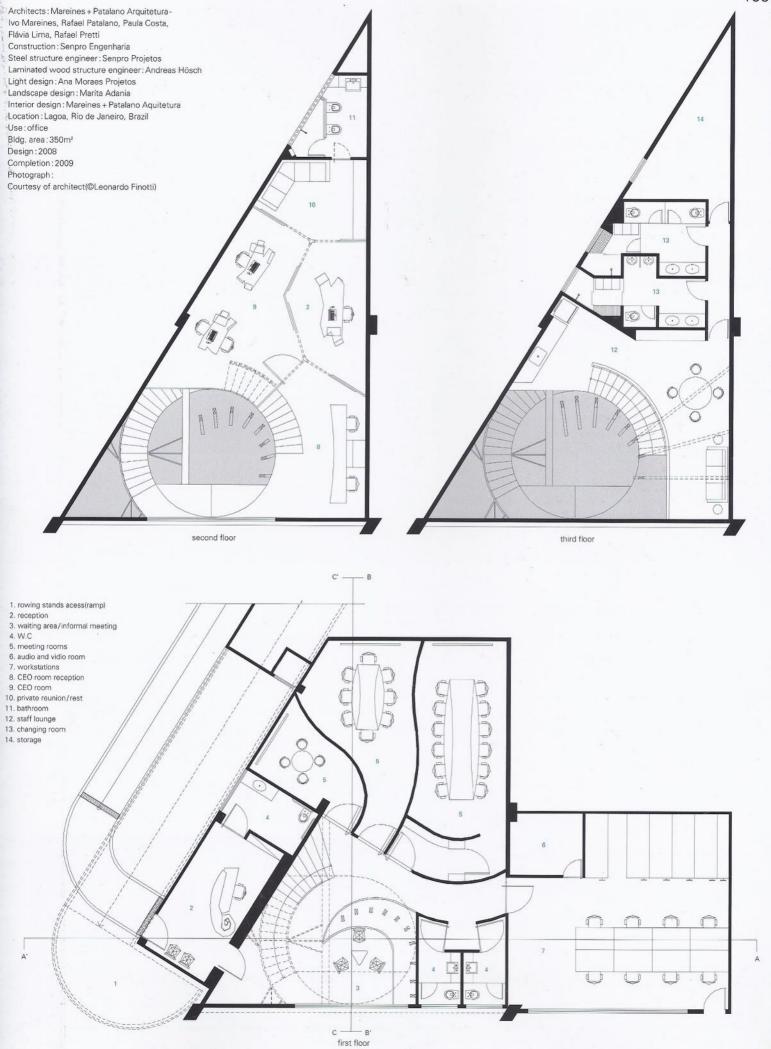
section B - B'

section C - C'









MOPI Elementary School

MOPI elementary school is located in an urban but very green area of Rio de Janeiro, Brazil. Its main facade faces a busy avenue that connects Rio's west and north zones. The opposite side of the building overlooks a national forest park with mountains, preceded by single-family houses and lots of vegetation.

The building was conceived as four separate volumes connected by open balconies and derived from a U-shaped whole open toward the forest. The two elliptical volumes that face the avenue contain the main classrooms, while the other two waterdropshaped volumes contains secondary spaces such as administration, pedagogic room, art, library, computer classroom, and so on. Splitting the whole building into four distinct volumes facilitates air circulation and natural cooling while marking very clearly the purpose of each one.

All levels are connected via 8 percent inclined ramps, to allow access by disabled individuals. As ramps consume a lot of space to go from one level to the next, middle levels were adopted.

MOPI 초등학교

MOPI 초등학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녹지가 조성된 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학교의 정면은 리우데자네이루의 서쪽과 북쪽 지역을 연결하는 번화가에 면해 있으며, 후면은 산이 있는 국립공원을 내려다보고 있다. 학교와 공원 사이에는 단독주택지역과 녹지가 조성되어 있다.

학교는 네 부분으로 구획되어 모서리마다 분리된 실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각각의 실들을 발교니로 연결하면서 남동쪽 숲을 향해 U자 모양으로 열린 형태를하고있다. 번화가를 바라보는 타원형의 두 구역에는 교실이 위치해 있고, 물방울 모양의 구역에는 행정부, 교무실, 미술실, 도서관, 컴퓨터실 등 부수적인 공간들이 있다.

건물의 나뉘어진 사이로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각 부분의 용도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모든 층은 8%각도의 경사로로 연결하여 장애인들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이

The top floor of the school, yet to be completed, will be a roof garden with grass and small trees overlooking the mountains, with recreational and pedagogical purposes.

Translucent channel glass encloses most of the classrooms, flooding them with light without distracting the students.

The main facade evokes the forest as it is an abstraction of a tree. It is composed of micro perforated pre-oxidized copper panels attached to reforestation eucalyptus laminated wood beams, which then are attached to the concrete structure of the building. The micro-perforation of the copper allows the passage of air while blocking rainwater. The green color dominates the fac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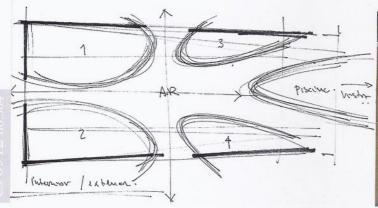
It also gives the school a very lively aspect since it plays with transparency and opacity.

During the day, it looks opaque from the outside and semitransparent from inside. At night, it becomes semi-transparent, letting movement and colors shine through and making it come alive.

경사로는 많은 공간을 차지해 중간층을 설치하였다. 옥상은 잔디와 작은 나무로 꾸민 정원으로, 레크리에이션과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교실 벽에 는 반투명 유리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주의는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많은 빛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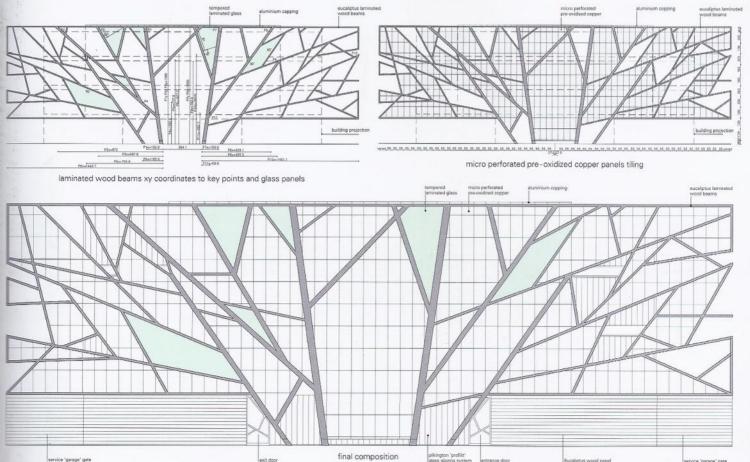
건물의 정면은 나무를 추상화한 모습으로 숲을 연상하게 한다. 외벽은 미세한 구멍이 난 산화구리 패널이 유칼립투스 나무 빔에 접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건물의 콘크리트 구조에 부착되어 있다. 산화구리 패널의 미세한 구멍은 공기는 통과시키고 빗물이 들이치는 것은 막아준다. 또한 건물의 입면은 전체적으로 녹색을 띤다.

학교는 낮에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불투명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반투명해 보 인다. 밤에는 반투명한 외관으로 빛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흘러나와 건물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투명함과 불투명함을 이용한 디자인은 학교에 생생 함을 불어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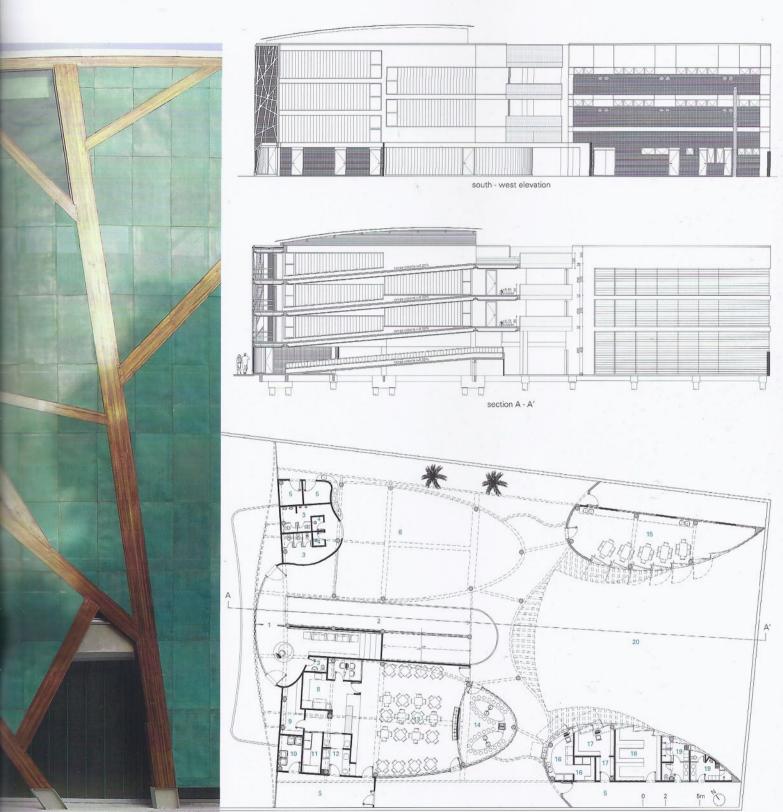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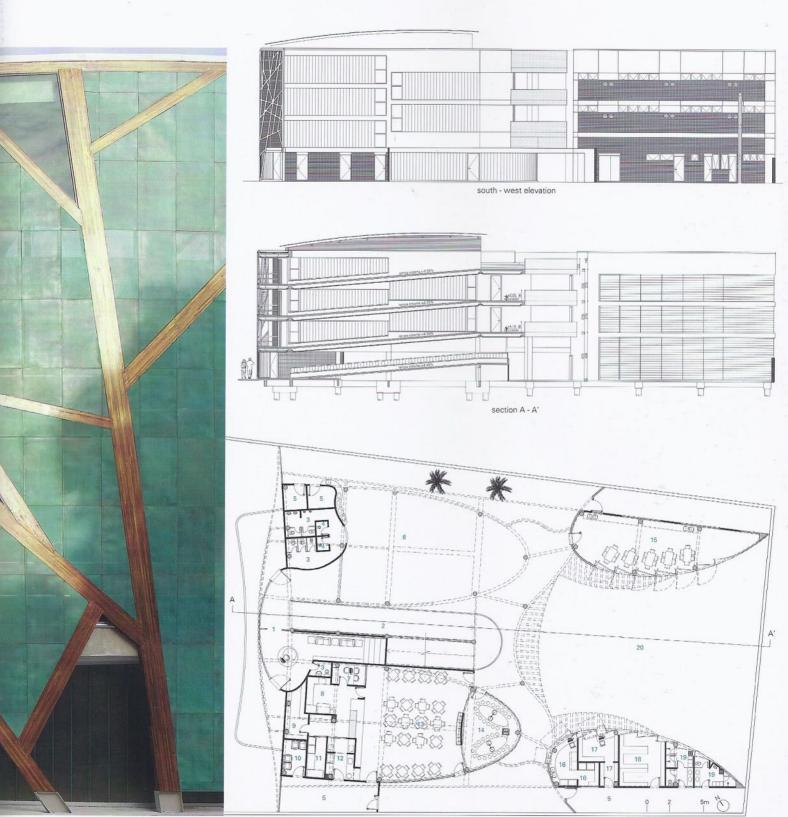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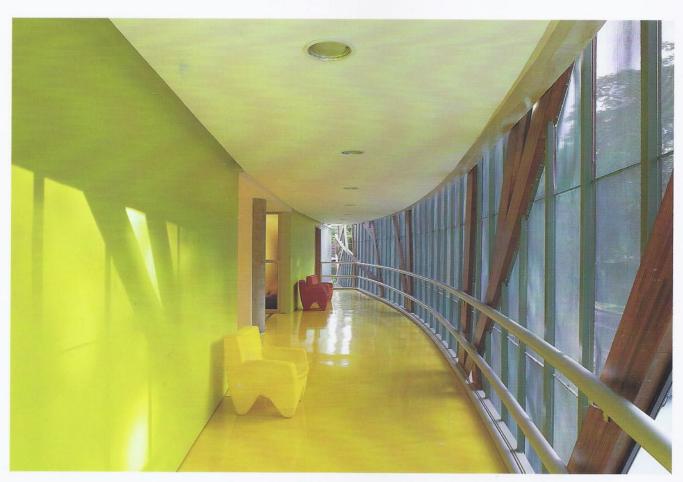


1. reception 2. ramp 3. toilet 4. children's toilet 5. technical 6. covered patio 7. nutritionist 8. kitchen-cooking 9. food storage 10. garbage storage 11. refrigerated storage 12. kitchen-cleaning 13. eating 14. experimental kitchen 15. art room 16. children's bar 17. shop 18. storag 19. changing room 20. open patio

first floor



1. reception 2. ramp 3. toilet 4. children's toilet 5. technical 6. covered patio 7. nutritionist 8. kitchen-cooking 9. food storage 10. garbage storage 11. refrigerated storage 12. kitchen-cleaning 13. eating 14. experimental kitchen 15. art room 16. children's bar 17. shop 18. storag 19. changing room 20. open patio first floor





Architects: Mareines + Patalano Arquitetura-Ivo Mareines, Rafael Patalano, Flávia Lima, Rafael Pretti

Construction: Kreimer Engenharia Lighting design: Ana Moraes Landscape design: Marita Adania Interior design: Mareines + Patalano Arquitetura Location: Rio de Janeiro, Brazil

Use:education
Site area:1,500m²
Bldg. area:1,500m²
Design:2005-2009
Completion:2009
Photograph:courtesy of architect
(©Leonardo Finotti)



The Leaf House

This project was inspired by Brazil's Indian architecture, perfectly suited to the hot and humid climate where it stands Angra dos Reis is one hour by car south of Rio de Janeiro. The roof acts as a big leaf and protects all the enclosed spaces of the house from the sun and also the in-between open spaces, truly the most important ones. These in-between open spaces represent the essence of the design. They are the social areas where the owner and his guests spend most of their time.

The very generous heights of these spaces, which vary from 3 to 9 meters, allow the SE trade winds from the sea to pass perfectly 나뭇잎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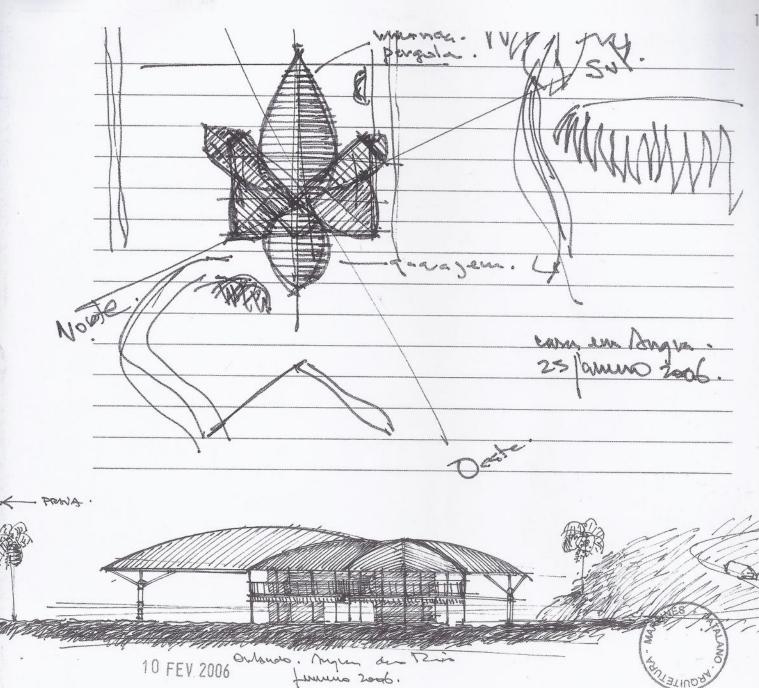
브라질 원주민들의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은 이 주택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앙그라도스레이스의 덥고 습한 기후에 안성맞춤이다. 지붕은 큰 나뭇잎 역할을 하며 주택 내부는 물론, 내외부 중간의 개방된 공간을 태양열로부터 보호한다. 중간의 개방 공간은 이 주택의 설계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주택 소유주와 방문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교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개방 공간의 높이는 3~9m로 다양하다.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는 남동 무역풍이

longitudinally through the building, delivering natural ventilation and passive cooling to both the enclosed and the open spaces. The architects see this low-tech eco-efficient design which has the greatest impact, namely the basic concept of the architectural design. The practice, luckily in agreement with their client, understands the concept of a tropical beach house as means to enhance the interaction between man and nature, trying whenever possible not to separate one from the other.

There are no corridors, and thus the inside and outside are nearly fused. The many sliding doors, most glazed, open up the enclosed spaces and let the sea breeze enter easily. The landscape is everywhere on the ground floor, and the curvy swimming pool 정확히 세로 방향으로 주택을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실내외 공간의 천연 통풍과 수동 냉각이 가능하다. 건축가는 이처럼 매우 효율적인 저기술ㆍ친환경 디자인을 건축 설계의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다. 그러는 한편, 자연과 인간이 언제나 조화롭게 공존하며 그 둘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열대 해변가 주택의 개념을 해석했다.

이 주택은 복도가 없기 때문에 주택 내부와 외부가 거의 구분되어 있지 않다. 유리를 끼운 미닫이문을 열면 바닷바람이 실내로 들어온다. 1층 어디에서나 랜 드스케이프가 펼쳐져 있고, 곡선 형태의 수영장은 주택 내부로 이어져 있다. 수



also snakes into the interior of the house. When the pool passes below the formal dining room, it becomes a pond with aquatic plants and fish before reaching the rear "veranda".

The veranda is resting space with five Brazilian Indian style hammocks. We call this space the "Brazilian lounge". The roof structure is made of laminated reforestation wood (eucalyptus), capable of crossing big spans (20 meters is the biggest here) with delicacy and warm aesthetics. The roof is covered in small reforestation wood tiles (pinus taeda) that easily adapt to the complex roof surfaces.

It also collects rainwater via the central steel column. The water is reused for gardening and flushing toilets. All surface finishes, 영장은 식당 밑을 통과하여 뒤편 베란다에 도달하기까지 수중식물과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연못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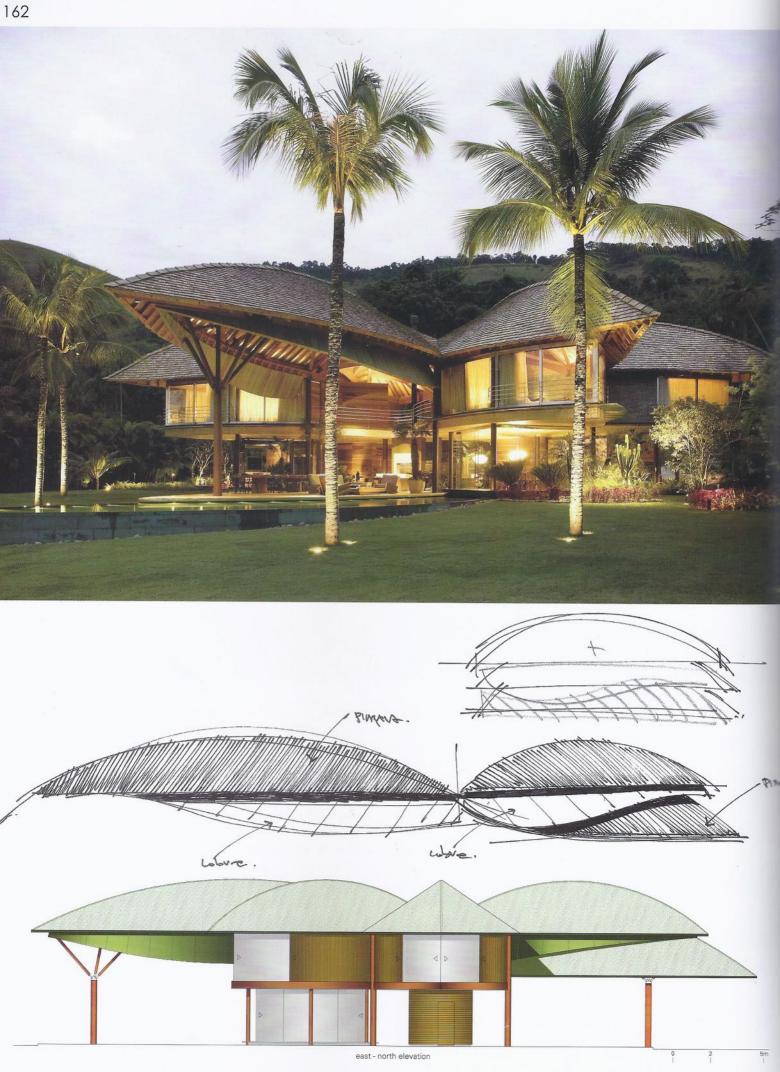
베란다는 브라질 원주민 양식의 그물침대 다섯 개를 갖춘 휴식 공간으로 '브라 질식 라운지'라고 불린다. 지붕 구조는 유칼립투스 나무 합판으로 만들었으며, 최대 20m에 달하는 넓은 공간을 덮고 있어 섬세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준다. 지붕은 소형 타이와 소나무로 덮었는데 이 나무는 복잡한 지붕 표면에 대한 적 응력이 뛰어나다.

중앙의 철제 기둥을 따라 빗물을 모아서 정원이나 화장실 용수로 재활용한다.

except for glass and pre-oxidized copper are natural. There are gray tiles of stone from the site, bamboo meshes, local wood from re-management forests, earthy flooring and wood reused from old electricity posts. The use of these natural materials, the transparency of the glass, the neutrality of the oxidized copper relate to the prevailing green of the designed and natural landscape.

It combines easily with the organic composition of the house and the rich diversity of textures and rhythms to offer a very desirable reality: There is a sensation of belonging to the site and being in harmony with the exuberance of Brazilian nature.

외부 마감재는 유리와 산화 처리된 구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천연재료를 사용했다. 집터의 돌로 만든 회색 타일과 대나무, 현지 숲에서 공수해 온 목재, 흙을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바닥재, 오래된 전신주에서 재활용한 목재 등이다. 이러한 재료들은 공간이 띠는 녹색 이미지를 자연경관과 어울리도록 한다. 이러한 친환경적 측면은 주택의 유기적 구성물이 풍부한 질감 및 리듬과 쉽게 결합하여, 주택에 대한 친밀함이나 생기 넘치는 브라질 자연과의 일체감 등을 느낄수 있다.



Mareines + Patalano Arquitetura-

Ivo Mareines, Rafael Patalano, Paula Costa,

Flávia Lima, Rafael Pretti

Construction: Laer Engenharia

Steel structure engineer: Abilitá Projetos

Laminated wood structure engineer:

Andreas Hösch

Mechanical, electrical and plumbing engineer :

Laer Engenharia

Light design: Airton Pimenta

Landscape design: Marita Adania

Interior design: Mareines + Patalano Aquitetura

Location: Angra dos Reis, Rio de Janeiro, Brazil

Use:house

Site area: 40,000m²

Bldg. area: 8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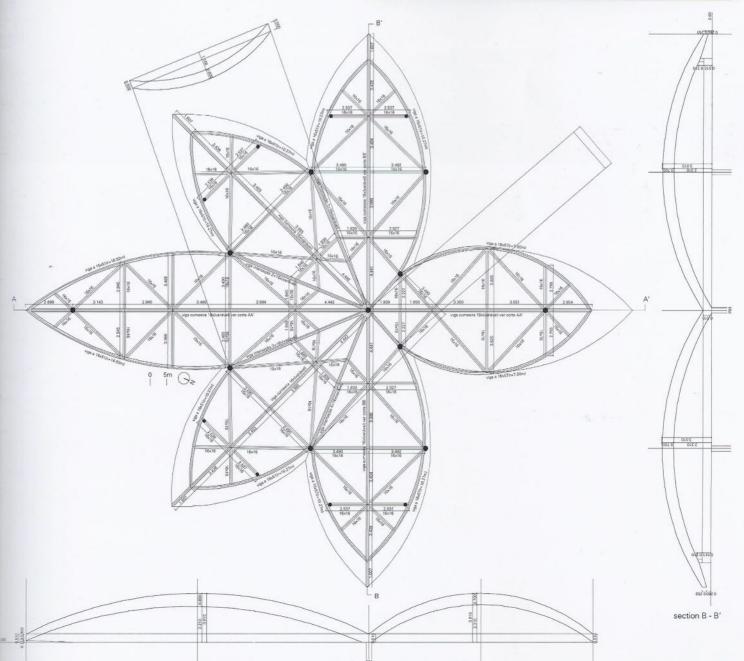
Design: 2006-2007 Completion: 2008

Photograph:

Courtesy of architect(@Leonardo Finot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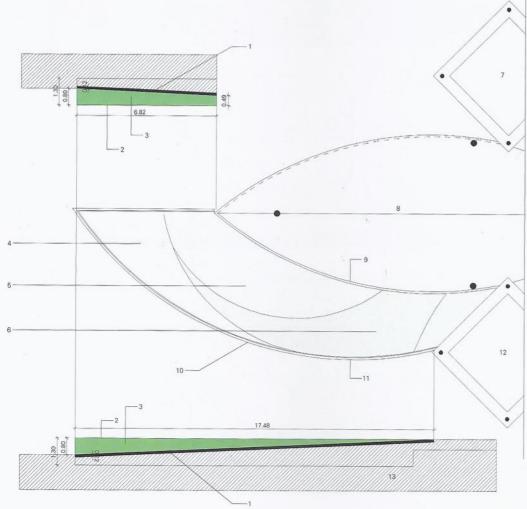
except as no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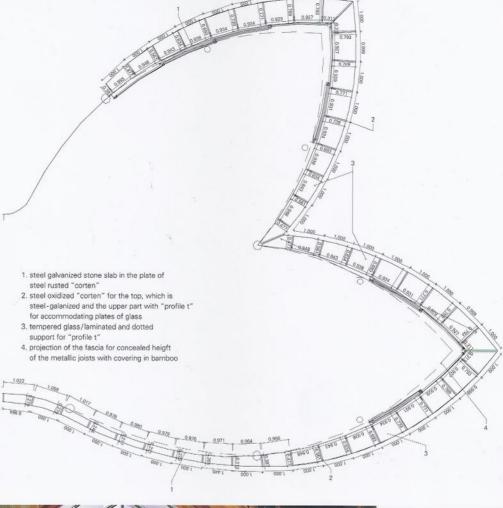
section A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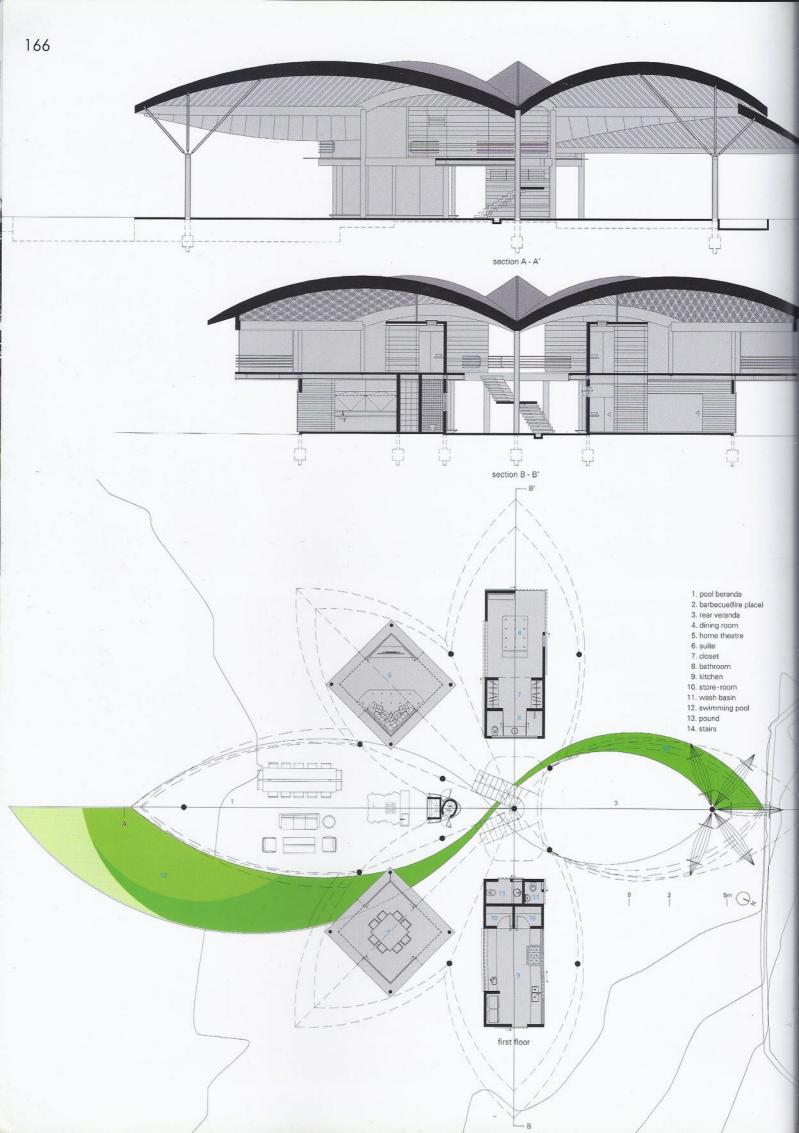


- 1. gutter for recoil of water
 2. sliding copper
 3. paved with pebbles of limited height
 4. vidrotil cube ref. 3720
 5. vidrotil cube ref. 3280
 6. vidrotil cube ref. 3290
 7. tv room
 8. veranda
 9. slab in balance
 10. thick wall area = 60.00m² vidrotil cube ref. 3280
 11. invisible rail
 12. dining room
 13. constructed swimming p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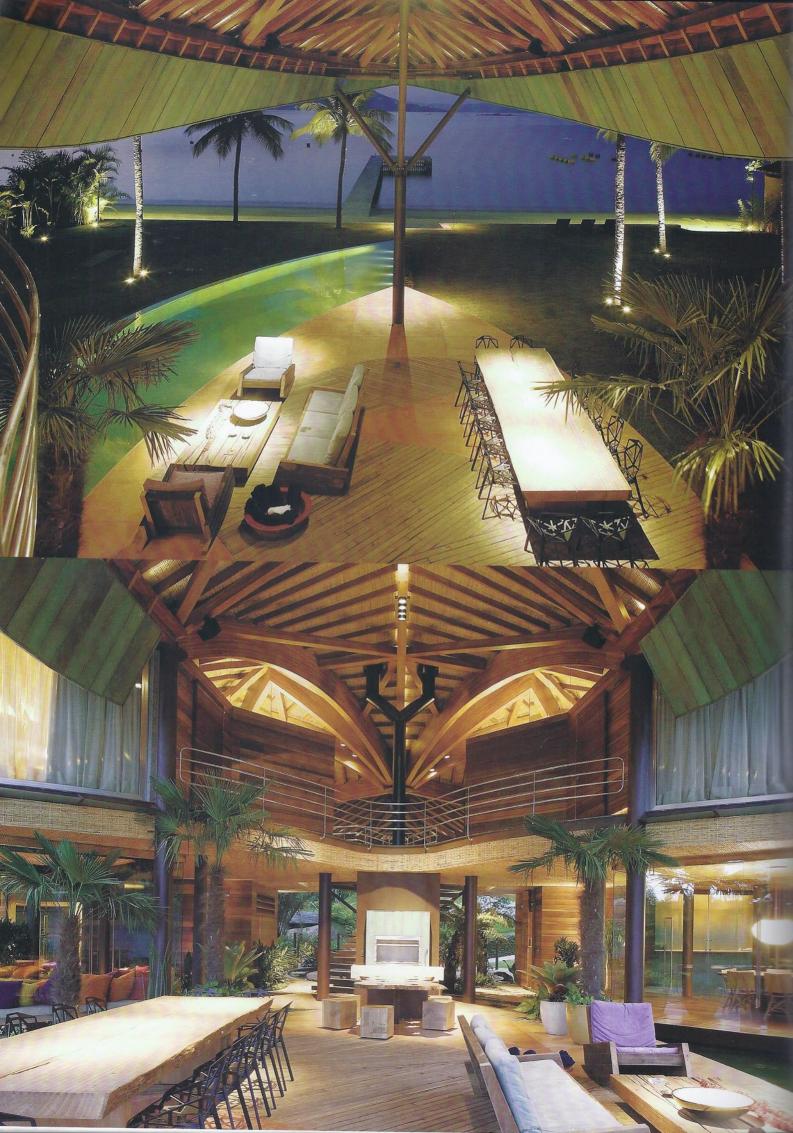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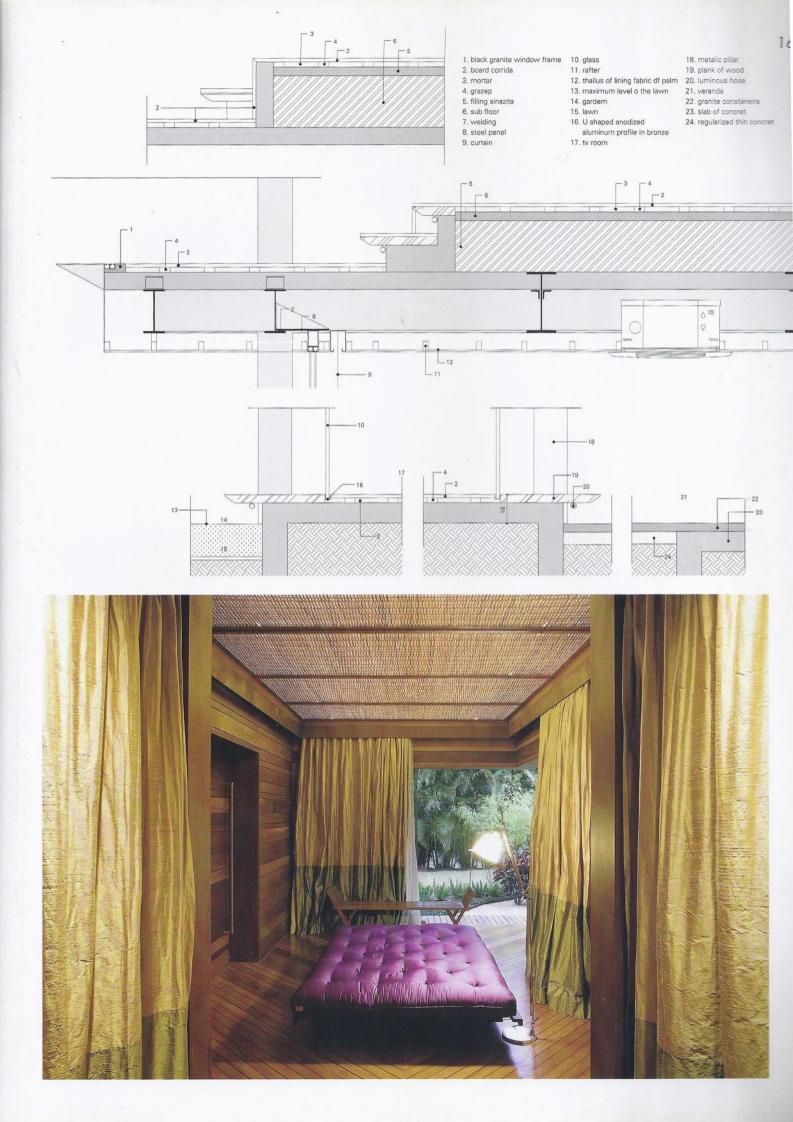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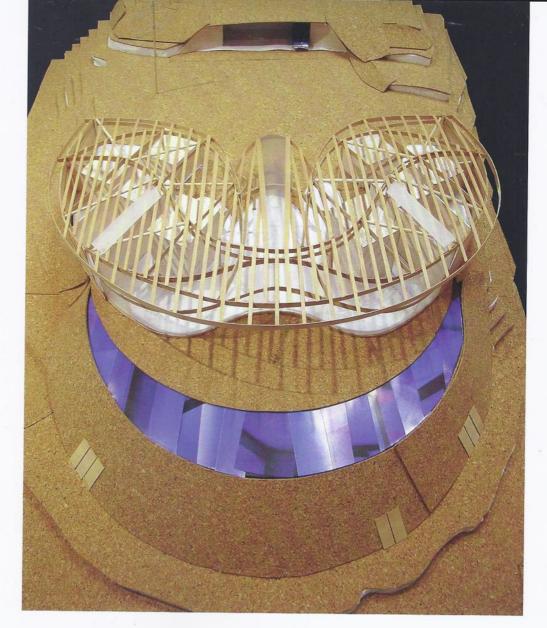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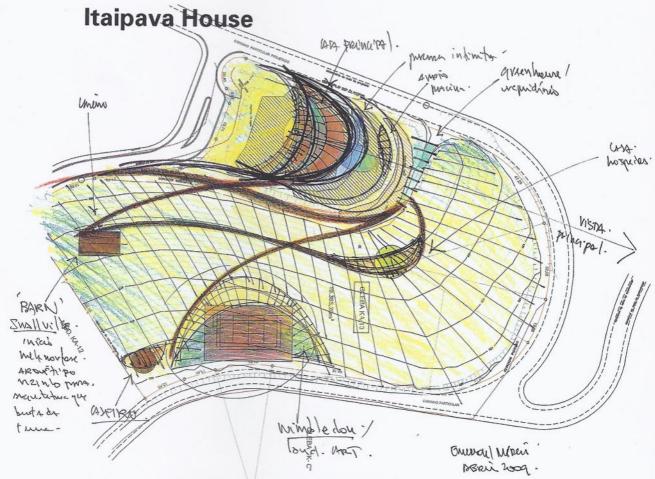












This house is located a two-hour drive north of Rio de Janeiro. It sits in the mountains 1,000 meters above sea level. This high altitude makes Itaipava's climate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capital. Rio is hot and humid most of the year, with very mild and short winters. Itaipava has dry and mild weather most of the year with longer and colder winters. Temperatures in midwinter drop sometimes to 5° Celsius.

The plot chosen by our client is 20,000 square meters with breathtaking views in every direction. To take advantage of the views, as the plot is a slope, we placed the main house on a plateau at the top of the terrain. This plateau, curiously, ends with an arch facing north. This naturally created a main arched facade facing north, from where the sun comes from the southern hemisphere. This way, all the rooms of the house are naturally warmed by the sun, saving energy for most of the year.

The bedrooms have wood slated shutters after a first layer of glass windows. This device filters the sun's heat on hot days. On the entrance level are six suites with boxes containing bathrooms and closets. In the central axis of the building is a spacious living room integrated with a dining room, a game room, and gourmet kitchen. This area makes extensive use of curved sliding glass panels to maximize the views. Separating the living area from the eastern and western suites wings of the house are two winter gardens: one for orchids and the other for herbs. On this level is a large arched veranda/solarium with a heated swimming pool and pond. There are also two elliptical volumes on this level: the bigger one contains a home theatre and the smaller one contains a guest bathroom with a little service area. At the lower level are service spaces, a sauna with rest area and a special room for woodworking, the client's passion. The roof will be constructed with reforestation wood laminated beams and natural finishes will be used thoroughly. Rainwater will be harvested from the roof. In addition to the main house, there will be a grass tennis court and a small building for the caretaker of the House and its large p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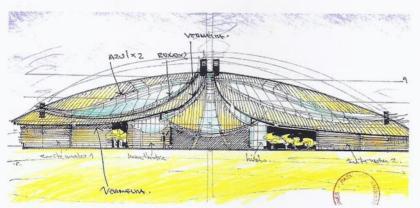
이따이파바 하우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 주택은 해발 1,000m의 산으로 둘러싸인 것이 특징이다. 높은 고도 때문에 이따이파바 지역의 기후는 리우데자네이루와는 사뭇 다르다. 리우데자네이루는 거의 1년 내내 덥고 습하며 짧은 겨울에도 그리 춥지 않지만, 이따이파바는 1년 중 대부분이 건조하고 따뜻한 반면 겨울은 춥고 길다. 가끔 한겨울 기온이 섭씨 5도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주택 부지는 사방으로 조망이 가능한 2만 평방미터의 공간이었다. 건축가는 주변 경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메인 하우스를 경사지 정상에 위치한 고원에 지었다. 신기하게도 이 고원은 북쪽을 향한 아치형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향의 아치형 건물을 지을 수 있었으며, 주택이 동지고 있는 남쪽으로는 햇빛이 들어을 수 있었다. 이러할 식으로 주택의 모든 방들은 1년 내내 태양열 자연 난방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침실에는 유민창을 설치한 후, 여름철 실내로 들어오는 고온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목재 슬레이트형 덧문을 달았다. 입구에는 욕실과 옷장을 갖춘 6개의 스위트 룸을 배치했다. 건물 중심부에는 식당과 오락실, 부엌과 통합된 넓은 거실이 위치해 있다. 이 공간은 최대한 넓은 주변 조망을 위해 곡면 유리 패널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다. 중심부의 거실 공간과 건물의 동서 양 날개에 있는 스위트 룸 공간을 난초와 허브 정원으로 구획하고, 온수 수영장과 연못을 갖춘 대형 아치형 베란다와 일광욕실을 같은 위치에 배치했다. 또한 2개의 타원형 공간도설계했는데, 넓은 공간에는 홈 시어터를, 좁은 공간에는 손님용 욕실을 배치하였다. 고객의 요청으로 휴식 공간이 있는 사우나 시설과 목세공(木細工) 작업을할 수 있는 특별실을 낮은 고도에 배치했다. 재조림나무 합판 보로 지붕을 짓고, 마감재는 전부 천연 재료를 사용할 예정이다. 지붕으로 빗물도 확보할 것이다. 메인 하우스와 함께 잔디가 깔린 테니스장을 배치하고, 관리인용 소형 건물과 토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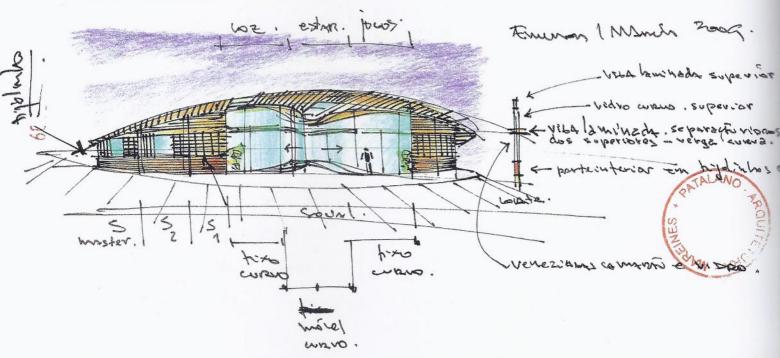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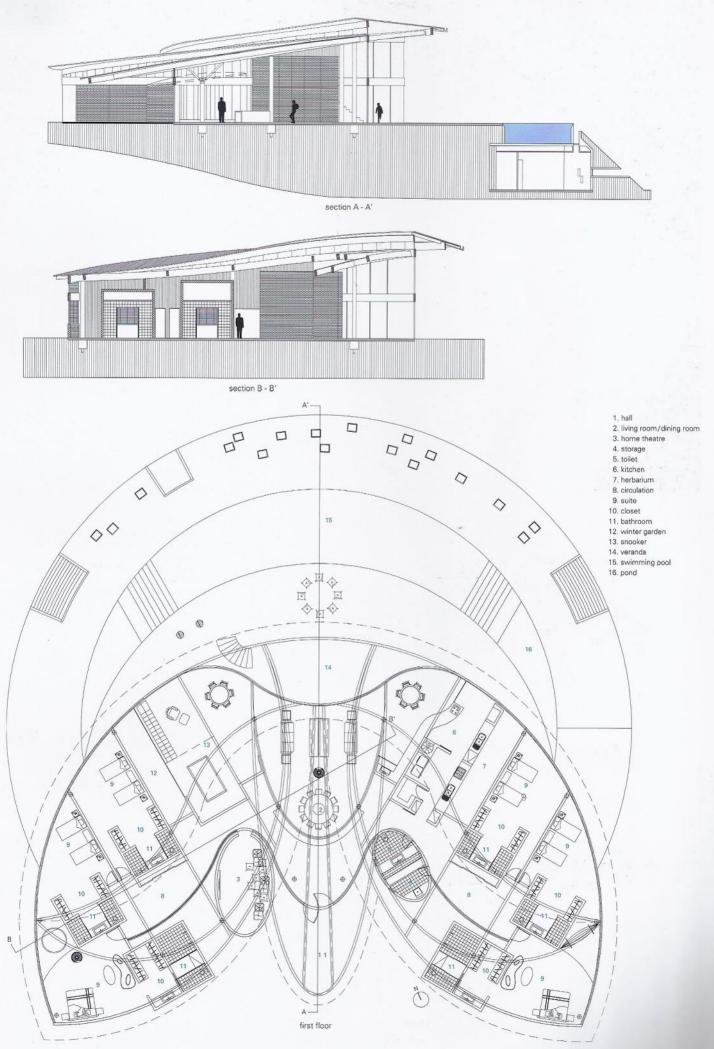
Mareines + Patalano Arquitetura - Ivo Mareines, Rafael Patalano, Paula Costa, Flávia Lima, Rafael Pretti Project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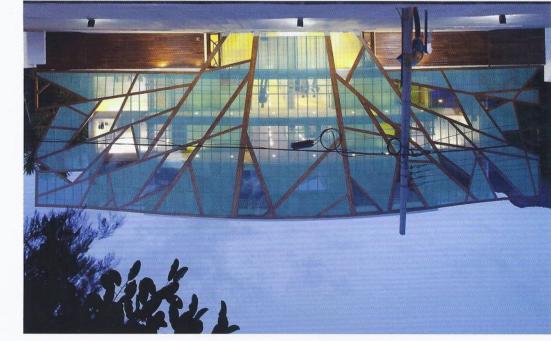
Bruno D'acri, Felipe Guimarães, Fabiana Siqueira, Julia Quei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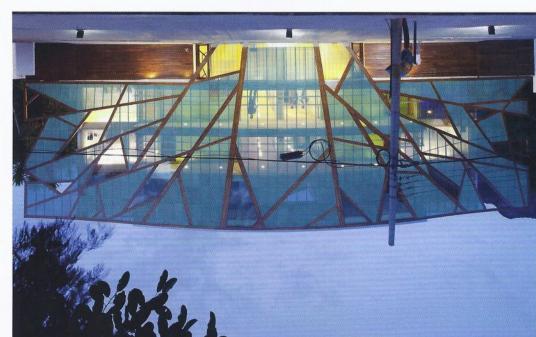
Laminated wood structure engineer: ESMARA Location: Rio de Janeiro, Braz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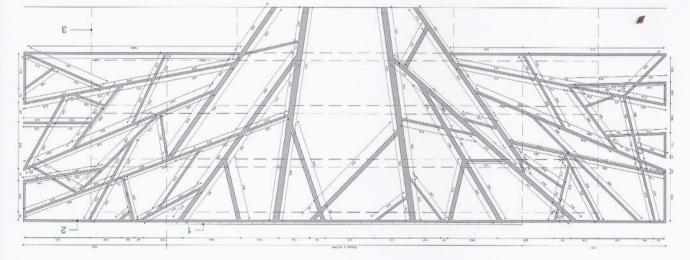
Use: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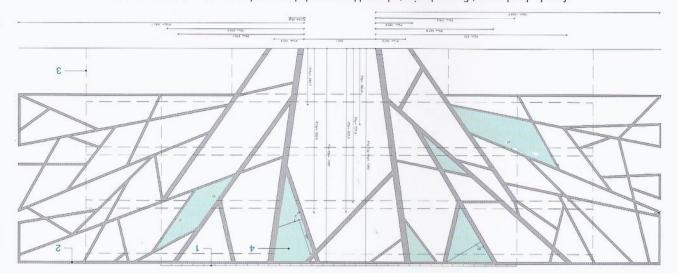


7 EXIT DOOR 8 PILKINGTON 'PROPILIT' GLASS GLAZING SYSTEM 10 EUCALIPTUS WOOD PANEL 11 EUCALIPTUS WOOD PANEL 11 AXIS OF FACADE

ZEBAICE , CARE CONTE WICHO DEBLORATED PRE-OXIDIZED COP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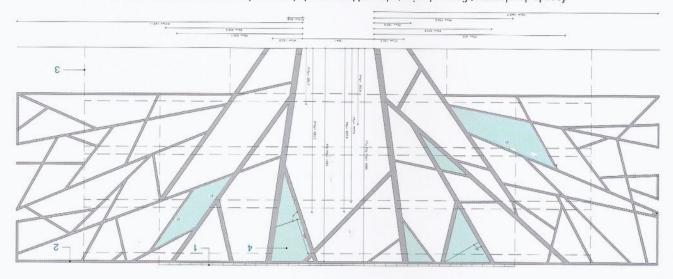
TEMPERED LAMINATED GLASS ALUMINIUM CAPPING EUCALIPTUS LAMINATED WOOD BEAMS BUILDING PROJECTION

facade development figure - laminated wood beams geometry / ন্দান্দ প্ৰশাহ প্ৰধান খুলাল বিষয় গু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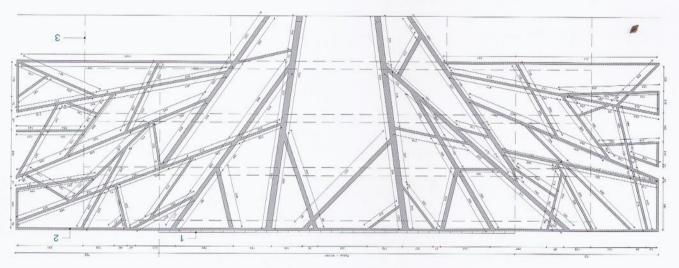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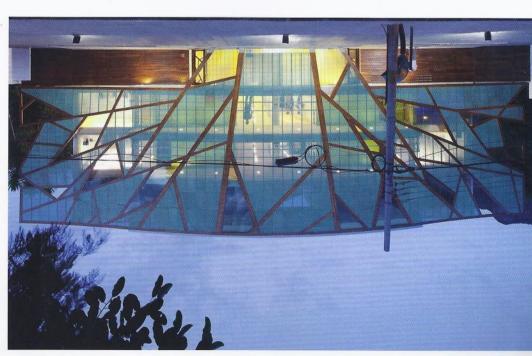
facade development figure - laminated wood beams and glass panels / 과사도 전자도 연하여 figure 에 및 및 함께 제일

facade development figure - laminated wood beams and glass panels angle 교사 π angle 교사교 angle 의 기계를 가장 기계를 가장



facade development figure - laminated wood beams geometry / 파시드 전개도 - 집합 목제 별 기하학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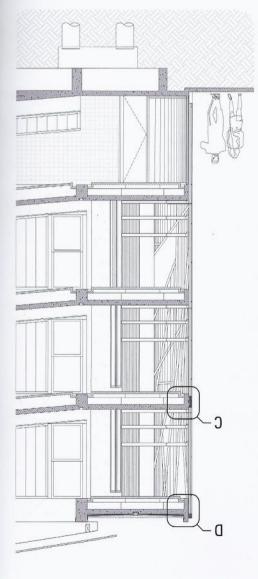
- 11 EXIS OF FRADE

 SERVICE GRANGE GOOF

 BERLICE GRANGE G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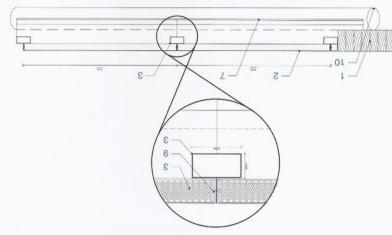
 SERVICE GATE

 - - TEMPERED LAMINATED GLASS
 - ALUMINIUM CAPPING
 EUCALIPTUS LAMINATED WOOD BEAMS
 BUILDING PROJ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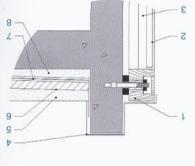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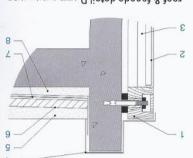
partial section B / 부분 단면 상세 B





facade horizontal section / 파사드 수평 단면 상세





묘 레마블링 6

13 고류도 고습 IS 독재마 11 에뮬이 페히음

8 파시트 상세 D	통区 \ G listəb əb	roof & facac
8 —		ε
2	7	S s
	Þ	
	////	
0	V	

10 국석영 산화피막 왕루미늄 튜브 - 바닥 마당

조두 붙스 주수 15두 155년 현동년 1시미 8

11 -10

미세 타운한 전체의 구의

임 11년 교합 구구들들은

						단열제
旧古	酱	三型 A	- [강수	11/2	단열제
				124	la s	임아는링

유브 - 바닥 마감 및 미세 타공관 전처리 구리 클레

BETWEEN TUBE - FLOOR FINISH AND MICRO PERFORATED PRE - OXIDIZED COPPER CLADDING 8

CURVED ANODIZED ALUM. TUBE - FLOOR FIN.	10
409 MUINIMUJA	6
DAIL 1070 GAILIO GAILI LAITHIRO	-

1acade detail C \ শ৸⊑ এশা ে

¹³ HICH DENSILL BUBBER 12 WOOD FINISH

	QNA2	CEMENT AND	
PROTECTION -	MECHANICAL	NOITAJUSNI	(

01440 0144 71474 470		
- NOITSELDRY JACKHANICAL PROTECTION -	G	
ALUMINIUM CAPPING	b	
VERTICAL STEEL STRUCTURE		
MICRO PERFORATED PRE-OXIDIZED COPPER	3	
MICRO PERFORATED PRE-OXIDIZED COPPER	7	

1 EUCALIPTUS LAMINATED WOOD BEAM

15 13

⁸ 시엔트 및 모래 경사 의 사이에 작화 하루미늄 프로파팅 채움

¹¹ EPOXY PAINTING

NOITAJUSNI 8

⁷ ANODIZED ALUMINIUM PROFILE FILLS GAP

PROCESS ===MA

Facade: Translucent channel glass encloses most of the classrooms, flooding it with light without distracting the students. The main facade evokes the forest, it is an abstraction of a tree. It is composed of micro perforated pre - oxidized copper panels attached to reflorestation(eucaliptus) laminated wood beams, which are then attached to the concrete structure of the building. The micro perforation of the copper allows the passage of air while blocking rain water. It also gives the school a very lively aspect since it plays with transparency and opacity. During the day it looks opaque from the outside and semi transparent from inside. The green color dominates the facade. At night, it becomes semi transparent, letting movements and colors shine trough, making it come alive.

Text / Mareines + Patalano Arquitectura

파사드: 반투명의 채널 유리는 학생들의 시아를 방해하지 않고 교실을 빛으로 가득 채우면서 교실의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다. 메인 파사드는 나무의 추상 작용을 통해 숲을 일깨운다. 또한 파사드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미리 산화시킨 구리 패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구리 패널은 얇은 유칼리나무판으로 된 목재 밤에 부착되어 있고, 이 목재 밤들은 다시 빌딩의 콘크리트 구조에 부착되어 있다. 구리에 난 미세 구멍은 빗물은 막아주면서 공기는 통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투명과 불투명의 기능을 동시에 함으로써 학교에 활기를 제공한다. 낮 동안에는 외부에서 볼 때 불투명하고 내부에서 볼 때는 반투명하다. 파사드를 지배하는 것은 녹색이다. 밤에는 반투명한 상태가 되어 움직임과 색상에 빛을 주어 활기를 띠게 한다.

/// 글 / 마레이네즈 + 파탈라노 아키텍투라









IVO MAREINES(A), RAFAEL PATALANO(B) : Mareines + Patalano 이보 마레이네즈(A), 라파엘 파탈라노(B) : 마레이네즈 + 파탈라노 아키텍투라는 Arquitetura was founded by Ivo Mareines and Rafael Patalano in 2001. They 이보 마레이네즈와 라파엘 파탈리노에 의해 2001년에 설립되었다. 그들은 are Brazil's leading architects, renowned not only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브라질의 대표적인 건축가들로서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분야에서도 but also in the interior design field. They are well - known for their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리프 하우스로 잘 알려진 까사 폴라와 같은 environment - friendly buildings such as casa folha, popularly known as the 자연친화적인 건축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브라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가장 leaf house, and for their great ability for expressing Brazil.

브라질다운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